

지령 1000호의 공덕으로 나날이 향상하길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열악한 교계의 언론 환경에서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불법홍포와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현대불교신문 가족의 공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사회는 갈등과 다툼이 여전하고, 그에 따른 이웃의 고통과 아픔이 곳곳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남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마음의 근본인 불성을 굳게 믿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랫동안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와 비불자의 경계를 넘어 세상을 읽게 하는 다정한 벗이었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고 이렇듯 나눔과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기여는 스스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난 선업을 잘 계승하여 더욱 깊은 감동과 활발한 정론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하며,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길을 환하게 밝히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언론사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